

기능성 보도블록, 특허 출원 증가

달라진 도심의 거리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걷기 열풍이 뜨거워진 가운데 이러한 경향이 보도블록 특허 분야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 보도블록 특허출원이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걷기에 편한 폭신한 보도블록의 특허출원이 연 25%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 속에서 관철에 무리가 없이 걷는 것만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최소한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걷고 싶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친환경적 요소를 더하게 되면 복잡함 속에서도 아늑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 그 증가율은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기능성 보도블록에 관한 특허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관철에 무리없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쿠션을 제공하는 고무 보도블록, 자연 그대로의 흙길을 느끼게 하는 황토 보도블록, 빗물을 빨리 배수시켜 걷기에 쾌적하도록 하는 배수성 보도블록 등이다. 또한 각 종류별로 장점을 따온 혼합형 보도블록, 즉 물이 잘 빠지도록 한



▲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기능성 보도블록에 관한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고무 보도블록과 황토 보도블록 등도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보행 위치정보를 담은 카드를 보도블록에 내장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유도용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점자 보도블록'도 개발되고 있는 등 기능성 보도블록과 첨단기술의 접목에 의한 새로운 보도블록은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SK텔레콤 스피드 010 상표등록 추진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이 내년 010 통합번호 체계에 대응해 '스피드 010'을 새로운 브랜드로 설정하고 상표등록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010 통합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이유가 국가 자산인 식별번호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통합 번호를 자신의 브랜드로 활용하려는 SK텔레콤의 전략은 논란을 불러모으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2일 주요 언론을 통해 '스피드 011과 스피드 010은 품질의 자부심이 같다'며 '스피드 011이 자부심을 드렸듯이 스피드 010이 자부심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하는 한편 '앞으로는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010을 사용하게 됐으나 SK텔레콤의 010은 스피드 010으로 차별화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앞으로 스피드 010이 SK텔레콤의 공식 브랜드로 사용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SK텔레콤의 010번호 차별화 전략에 대해 후발 PCS 사업자들은 '정부가 식별번호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구별되지 않는 통합식별번호를 도입하는데 이것마저 자사 브랜드로 이용하려 드는 것은 선발사업자의 특권을 지속하려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번호이동성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식별번호 브랜드화 전략에 대한 SK텔레콤과 후발 PCS 사업자들간의 공방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3국간 특허협력 본격 추진

하동만 특허청장은 지난달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징 추안 중국 특허청장 및 야수오이마이 일본 특허청장과 제3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3국 공동 웹사이트 개발 등 3국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동 웹사이트 개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지적권관리에 관한 공동 세미나 개최, 3국 기술동언어 사전 개발 및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등으로 이를 통해 3국은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제3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은 3국간 특허행정 협력에 있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지역 특허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여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회담 전날인 13일에 개최된 제9차 한·중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지적권 보호관련 세미나 개최 등 지적권보호를 위한 공동노력, 공동선행기술조사, 심사관교류

및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양청간에 합의하였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공동선행기술조사 및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사업은 양청 심사에 대한 상호신뢰 증진 및 출원인의 편의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하동만 특허청장은 이날 오후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을 방문하여 간구오핑 수석부총국장을 만나 최근 중국에서 우리 기업 상표권에 대한 침해사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지적권보호에 대하여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 중국 상표국과 한국 특허청 간 고위급 및 실무회담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정기적인 교류협력 채널이 구축되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만히 해결해 주도록 촉구한 것은 현재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유명상표의 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 지적권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LG전자, 미국서 세탁기 특허침해 피소

미국 3위의 가전업체인 메이태그가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와 의류건조기에 쓰이는 환기 시스템과 패널 콘솔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이태그는 지난달 10일 제기한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에 LG전자의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내 세탁기 시장에서 가전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으로 미국 최대의 가전업체인 월폴도 지난 8월 LG전자에 대해 신형 식기세척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가전제품제조업협회(AHAM)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미국 내 세탁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 의류건조기는 5.2% 증가하는 등, 올들어 평균 2.6%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가전제품들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정신 Professional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시회 개최 Impressive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에게 감동 Responsible 책임감과 신뢰를 원칙으로 한 고객만족 추구 Creative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로 업무수행

“격조 높은 전시회를 열어 드립니다”

www.orientfair.co.kr



주요업무

- 전시개발 및 분석
- 광고 및 홍보
- 전시기획 및 운영
- 이벤트기획 및 운영
- 해외전시 프로모션



주요 전시회

- 국제주차장 및 주차설비 산업전
- 국제웨딩페어(춘·추계)
- 정부조달우수제품 및 디자인전
- 여성기업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
- 여성디자이너 귀금속 명품전
- 서울 국제 영·유아상품 및 정보 박람회



(주)동양전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402호
ORIENT FAIR CO., LTD. TEL (02) 780-0843 FAX (02) 780-0845

■ Global News ■

올해 가장 쿨한 발명품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은 지난달 11일 '2003년 가장 쿨한(coolest) 발명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선보였거나 내년에 시중에 나올 아이디어 상품 중 기발하고 실용적인 제품들을 소개한다.

로봇 분야

'근력 보조 슈트(PAS)'는 착용시 무거운 짐기를 가볍게 옮길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 일본 가나가와 기술연구소의 아마모토 게이치로 교수가 선보였다. 몸무게 38kg의 여성이 이 장치를 착용하면 57kg의 남성을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다.

미국 포와캐디사는 시속 10km의 속도로 골퍼를 따라다니며 골프채를 옮겨주는 '로봇캐디'를 내놓았는데 '퍼트가 빗나갔다고 비웃음을 당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일본 옴론사는 옮겨 다니며 고개를 흔들고,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애완고양이 로봇 '네코로'를 선보여 실제 고양이를 일일이 챙겨주는 일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줬다.

패션 분야

루미넥스사는 미세한 배터리를 섬유 속에 집어넣은 발광섬유를 개발. 이 발광섬유를 소원도의 마네키이나 무대의 커튼, 핸드백 등에 사용하면 특별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모토로라와 프로그디자인사는 '인텔리전트 선글라스'를 선보였다. 이는 몸에 착용하는 일종의 컴퓨터로 오른쪽 렌즈에는 초소형 카메라, 왼쪽 렌즈에는 초소형 디스플레이가 있어 눈앞의 장면을 촬영할 수 있고 외부에서 보낸 이메일도 읽을 수 있다.



▲ 루미넥스사의 발명품인 '발광 섬유'로 만든 핸드백.

레저 분야

독일의 기업인 알반 가이슬러는 고공낙하의 쾌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섬유 날개를 단 '스카이레이'를 내놓았으며 이를 착용하면 공중에서 공장 낙하하지 않고 최고 218km의 속도로 전후좌우로 날 수 있다.

킵스 아쿠아다사는 007영화에서 나왔던 수륙양용 스포츠카를 선보였다. 버튼을 누르면 12초 내로 바퀴들이 접혀 물 위를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이 차는 육지 시속 160km, 수상 시속 48km를 자랑한다.

이밖에도 해파리나 산호로부터 뽑아낸 단백질을 주입해 빨강거나 파란 형광빛을 내는 열대어와 8만볼트의 전류를 옷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노 콘택트 재킷'과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약을 콧속에 스프레이처럼 뿌려주는 '폴미스트'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주최한 '제4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달 5일 서울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콤팩트 아이볼 센싱 시스템'을 출품하여 디지털 카메라, 조준장치 및 각종 인식 입력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연세대학교 김동수·임승현 팀이 차지하였다. 금상은 '저전력 고속탐색을 위한 3원 콘텐츠 어드레스 메모리'를 출품하여 저전력 소모 고속 탐색 캡을 실현한 최성대·손교민 팀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은 (주)텔트론의 김춘환·이정호·김도형 팀과 서울시립대학교의 임진업·권오준·조영주 팀이, 동상은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오영훈 등 5팀이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은 다양한 시스템온칩과 관련된 기술정보 공유의 장으로 마련된 '아·태 시스템온칩 2003'과 함께 진행되었고 하동만 특허청장,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대기업, 설계업체,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였다.

특허청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의 관심 제고와 기업 및 대학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 기술을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지난달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회 반도체배치설계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수상자들에게 하동만 특허청장이 시상하고 있는 모습.

올해로써 네 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3월 개최공고를 통해 27개 기관의 45개 팀이 참가신청을 하여 최종 9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특허청은 앞으로 이들 수상작에 대하여 반도체설계자산 연구센터의 반도체설계자산 유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품제작 발표를 지원하며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술경쟁력 세계 6위

우리 나라의 2003부터 2004년까지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부는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 2003·2004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세계 1백2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위는 미국이며 핀란드, 대만, 스웨덴,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기술경쟁력 지수는 기업의 기술에 대한 관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미국 특허 등을 포함한 기술혁신지수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간 경쟁 수준, 학교 내 인터넷 접속, 인터넷 사용 인구, 이동전화 가입자 수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지수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지수는 7위, 정보통신 지수는 11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종합적인 기술경쟁력에서 6위에 올랐다.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특허청이 편리하고 신속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지난 95년 설치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며 걸돌고 있다. 지난달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 건수는 2000년 5건, 2001년 3건, 2002년 15건, 올해 4건(10월 말) 등으로 한해 평균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위원회를 열 수 없어 지난해의 경우 15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12건이 상대방의 조정 거부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올해도 4건 가운데 상대방 조정 거부가 3건에 달했다. 특히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어 조정 결과에 불복,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쟁 및 침해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부족해 특허청 내부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분쟁에서 경제적 소외자를 돕고 신속한 조정으로 쌍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두었으나 강제성이 없는 제도 특성상 활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홍보 강화와 함께 보완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 특허등록 대행변리사 등장

북한에 특허를 출원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남&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이 사무소가 북한 특허시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97년부터.

남&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남상선 대표변리사는 '북한에 특허와 상표 출원을 대행하기는 국내에서 우리가 거의 최초일 것'이라며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투자를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 정부가 한국기업의 특허권을 제대로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북한 특허법률에 대해 조언해주고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의 특허등록을 대행함으로써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남상선 대표변리사가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특허법률사무소가 북한 특허시장 문을 두드리기는 쉽지 않았다. 97년부터 북한 모란봉 특허상표대리소, 평양 특허상표대리소 등에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 사업의향을 타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북한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중국 선양에 있는 한 특허 상표대리소를 거치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독일과 미국 회사 각 한 곳의 특허를 북한에 출원했고 싱가포르 회사 한 곳과 재미동포 1명의 상표도 북한에 낼 수 있었다.

한국 기업 출원 실적이 없는 데 대해 남상선 대표변리사는 '우리 기업은 아직 법률적으로 직접 북한에 특허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 현지법인 이름으로는 북한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남&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측 얘기다.

[기사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